

# 왜 때렸어요?

(의료 사고 3)

## I. 정신이 없는 환자

사람들은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풀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견된 사고는 가끔씩 일어난다. 만원 버스에 올라탈 때 뒷주머니에 넣은 지갑에 신경을 바짝 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지만, 버스에서 내린 후 뒷주머니가 비어 있음을 깨닫고 허탈해 하는 것이 또 보통 사람들 아니던가.

아주 오래 전, 필자가 수련의로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교육을 담당하던 과장님께서 “알코올 금단증을 보이는 환자인데, 그 증세가 심한 편이니 이 환자를 입원시켜 잘 치료하라”는 전갈과 함께 환자, 그리고 보호자로 따라온 동생과 부인을 올려 보냈다.

보호자들은 마치 말을 맞추고 온 듯 “워낙에 술을 많이 마셔 왔지만 성실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으라는 가족들의 권유로 보름 전에 술을 끊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심각한 금단 현상인 ‘진전 섬망’에 대해서 물어 보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올라온 환자는 전혀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걷는 걸음걸이 하며 대화의 수준하며, 질문과는 전혀 떠판인 대답으로 미루어 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다.

“뇌의 컴퓨터 단층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보호자는 “돈이 없다.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우선 치료를 좀 해 달라”며 극구 촬영을 거부하였다. 그 때 당시만 하여도 CT촬영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필요했던 터라 ‘가난해서’라는 분명한 이유를 대는 보호자를 마냥 밀어붙일 수만은 없었다.

보호자는 입원에 필요한 몇 가지의 수속만을 마치고는 바람처럼 휩하니 사라져 버렸다.

병동에 입원한 그 환자는 실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다. 잠도 전혀 자지

않았고 식사시간인지 오락 시간인지 구분조차 못 했고, 사실상은 타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만 하루가 지난 후 보호자를 오도록 하였다. 뇌 속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신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호자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돈이 없으므로 제발 그 검사만은 맡아 달라”고.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돈이 문제냐”고 얼러 보기도 하고,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면 퇴원시켜 가라. 죽어도 책임질 수 없다”고 짜증스럽게 말하였지만 보호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다. 도망쳐 다니듯 하던 보호자들과 전화통으로 씨름을 하며 약 4, 5일의 시간이 흘렀다.

거의 통제 불능으로 오락가락하던 환자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못 잔 잠을 보충이나 하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뵘싸! 그 환자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혼수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 우선 급한 대로 환자는 응급실로 보내어 기도 확보를 하고 산소 공급을 했다. 보호자에게는 “임의로 CT촬영을 하겠다.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잠시 후 보호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CT찍지 마세요. 돈 없어요”가 그 내용이었다.

“어떻게 할 거냐”의 질문에 보호자들은 “우리가 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한 시간, 두 시간, 무려 24시간을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다. 원무과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고 마침내는 내과와 외과 의사들이 동원되어 심폐 소생술이 벌어졌다. 그리고 환자는 끝내 그곳에서 숨졌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보호자들은 마치 관계없는 사람인 양 두 세 시간 간격으로 응급실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환자의 상태를 슬쩍 슬쩍 물어 보고 있었다.

## II. 장례비를 책임져라

어쨌거나 환자는 사망하였다.

환자의 사망 후 나타난 보호자들은 다짜고짜 “때려서 죽였다”라고 험악한 말들을 늘어놓

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사망한 환자를 영안실에 보내고는 또 웅하니 사라져 버렸다. 잠시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버린 것이었다.

두어 시간이 지난 후 사망한 환자의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치료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은 보호자 측의 잘 못이 명백하니 뭐라고 호통이라도 쳐주어야 하건만, 또 그렇지 못 하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다. 어쨌든 가족들은 이제 유가족이 되었으므로.

그러나 그 쪽에서 하는 말은 이제 협박조를 띠고 있었다.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킬 때는 치료해 달라고 그런 것이지 때려서 죽여 달라고 그랬냐?”, “장례비를 책임져라” 그러다가 또 “우리 형수와 자식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하는 것들이었다.

보호자를 나오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그는,

“오후 6시까지의 직장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과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은 다들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찌 되었건 보호자 측과 이야기는 하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사망한 환자의 부인을 불렀다. 그 부인은 순순히 병원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처음 올 때의 살기등등한 표정과 달리 남편의 사망이 실감되는지 한참을 오열하더니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았다.

“시동생이 말하기를, 잘 아는 병원 전문가가 오후 6시 경 시간이 난다고 하여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밀천 장만해 줄 터인 즉, 병원에서 전같이 오더라도 절대 가지 말라”하는 것을 선생님이 부르시니 찾아왔노라고 하였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짐작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 앞에 오열을 하던 부인은 결국 ‘계획된 의료 사고’의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고 말았다. 부인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털어놓았던 그 의료 사고의 전모는 이러했다.

위낙 술만을 마시고 일을 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남편은 약 한 달 전에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그 때 전봇대에 머리를 심하게 받쳤던지 그는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었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동네 사람에 의해 병원에 호송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때 뇌의 상태를 보기 위해 뇌 단층 촬영이 시행되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주먹만 한 크기로 피가 고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담당 신경외과 의사는 손상의 정도로 보아 생명을 건질 확률은 50%정도이며, 위낙 혈종이 커서 생존한다고 하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렵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수술을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집에 와 있던 환자는 한 일주일 후부터 움직

이더니, 먹을 것은 찾는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계속되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를 혼자 놓아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이었다.

“좋은 수가 있다”며 시동생이 입원 계획을 일러준 것은 입원하기 일주일 전쯤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시동생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올 예정이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었다.

필자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지, 미망인이 양심의 고동을 느꼈던지, 아니면 돌아가신 환자가 마지막으로 주치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해서 그랬던지, 아무튼 그 이상한 의료 사고는 그렇게 허망하게 끝을 맺어 버렸다.

그리고 또 한 시간쯤 뒤에 사망한 환자의 동생이 전화를 해 왔다. “당신의 의사 면허증이 온전하려면...” 운운하면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필자는 아주 당당하게 “당신 지금 당장 병원으로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해서 형을 살게 하겠다”고 맞섰다. “당신의 사기 극을 당신의 형수님이 다 알려주었다”며. 어찌나 껄껄하던지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다만 버스에 올라타서도 집에 올 때까지 계속 뒷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강박적인 버릇만이 습관으로 굳어 버렸다.